



제지업계

182-1332



이 동 우  
조일제지(주) 영업이사

먼저 지난 2000년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1884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제지업계는 '99년말 원지가격 환원에 힘입어 매출액 증대와 수출호조로 순조롭게 출발하였으나 상반기중 각종 원자재(수입 펄프, 고지, 국내고지)의 가격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져 하반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업계의 예측과 달리 원자재 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진정되었으나 수출둔화 및 내수경기 침체 국면으로 무거운 짐을 안고 2001년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작년 한해동안 제지업계는 지속적인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력과 각사의 자체 조업단축을 통해 판매가격 안정을 위하여 무던히 힘들었던 한해로 기억된다.

여러 가지 국내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지업계도 2001년을 전망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우선 원자재 부문은 상반기중 현재 수준의 약보합세로 이어질 전망이나 향후 미국경기의 흐름에 따른 세계 경기 추세, 환율 등의 외부적 변화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 판매부분은 첫째, 내년도 각종 예측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내수 부문은 제지업계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수출부문도 업계가 주력해왔던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Local 제지 설비 증설로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로 둔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내수, 수출 양 부문 모두 작년에 비해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제지업계가 최근 3~4년 동안 모두 안고 있는 공급과잉에 따른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외부환경(수출호조, 내수특수 등)의 위축으로 더욱 2001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TO체제아래 수입 원지의 관세 인하 및 폐지가 매년 코앞에 닥치고 있어 업계가 안고 있는 대응방안 또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지업계도 늦은 감은 있지만 각 업종에 불어닥치고 있는 구조조정의 물결이 서서히 도래되어야 비효율적인 과당경쟁을 타파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21세기 제지업계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ko